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마포구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마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마포, 그 추억의 오솔길
수상내역	마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우수상
작가	신상진
공모분야	창작이야기
장르	수필
소재	마포의 추억과 관련된 성장기
기획의도	제게 마포구 만리동, 공덕동, 염리동은 성장의 배경이 되었던 곳입니다. 결혼 전 24년을 오롯이 채워주었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반창회를 통해 그 때의 기억과 친구들을, 장소, 사건을 돌아보는 식으로 스토리를 엮었습니다.
스토리 구성 (Plot)	<p>어느 날. 공덕 초등학교 6학년 5반 반창회가 열린다. 담임선생님의 출판기념회를 겸한 모임이다. 선생님은 한 학년 내내 글쓰기를 열심히 가르치셔서 그중 소설가, 시인이 한 명씩 나올 정도다. 이번 모임은 마포에 얹힌 기억을 한 편씩 글로 써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p> <p>동창들이 한 명씩 나와 글을 발표하는데, 만리동에 정착한 미경이부터, '마포 골목길'의 가난한 이야기, 만화가게, 초등학교 졸업식, 짝사랑, 국군의 날 행사, 마포의 특산물 새우젓과 시장에서 족발을 팔던 엄마 얘기로 이어진다.</p> <p>아이들은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자랄 때와 다르게 변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회에 젖기도 한다. 추억이 아롱진 6학년 5반 교실은 잔잔한 감동과 사제지간의 정, 친밀한 우정으로 한껏 달아올랐다.</p> <p>모두들 마포의 유명한 족발집을 찾아나서는 걸로 이야기는 끝난다.</p>

마포, 그 추억의 오솔길

3년 전.

초등학교 반창회가 있었다. 반장이었던 김영민이 사회를 봤다.

“오늘 뜻 깊은 날 6학년 5반 반창회를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 해 졸업한 우리반이 63명이었죠. 거의 61년생들이니 이제 마흔 아홉살이 되었네요. 거의 삼십 오년 만에 만나니 한 번에 못 알아보겠는 인물도 있고, 그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느낌이라 한 번에 알아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의미있는 건 당시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주혁 선생님을 모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당시는 28세 교대를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오셔서 처음 발령받은 학교라 아주 젊은 선생님이셨죠. 선생님께서 이번에 책을 내셔서 출판기념회 겸 다 함께 모이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선생님이 영민이를 보고 싱긋 웃으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 그래, 모두들 잘 살아왔구먼, 다들 표정이 밝아 더욱 반갑네... 자네들이 이 교실에 있으니 옛날로 되돌아간 것 같구먼...”

“네... 선생님, 책 발간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절을 드리기로 했으니 여기 교단 위에 앉아 주세요.”

“아~ 무슨 절까지. 괜찮네. 이제 다들 중년의 어른인데...”

“아닙니다. 자, 거기 깔아놓은 돗자리로들 들어서고 다 같이 절을 드립시다.”

함께 절을 드리니 선생님의 표정도 감개무량하신 듯 눈물이 글썽거린다.

“음~ 고맙네. 고마워”

“저희가 공덕 국민 학교에 다닐 때만해도 시장이니, 골목이니 구석구석 볼거리가 많았는데 오늘 보니 완전히 다른 곳이 됐더군요. 아파트에 빌딩에 그래서 이번에 모이면서 저희들의 추억 거리를 하나씩 글로 써오기로 했습니다.”

“그래? 허허...”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강조하신 게 글쓰기였지요. 관찰하고, 생각하고, 써라... 그래서인지 우리 반에서 시인 한 명, 소설가 한 명이 나온 거 아시는지요?”

“음... 알지. 미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글을 잘 썼으니까. 뭐가 되든 될 줄 알았지...”

다들 미희가 떠오르는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선생님. ‘김미희’ 잘 나가는 작가입니다. 이번에도 문학기행이라는 주제로 해외에 나가 있어서 오지 못한다고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 잘 된다니 기쁘구먼...”

“대신, 수필을 한 편 보내왔는데요, 그건 나중에 읽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마포에 관한 추억 첫 번째 글입니다. 부반장이었던 미경이가 먼저 읽기로 했습니다.“

나의 마포 상경기

자주꽃 핀 건 자주 감자

파 보나 마나 자주 감자

하얀꽃 핀 건 하얀 감자

파 보나 마나 하얀 감자

권 태 웅

참으로 단순소박한 시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째이었다.

아버지가 이 시를 읽으며, "하~~참 멋지구나...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가 나오고, 하얀꽃 핀 걸 파보면 하얀 감자가 나오거든..."이라고 하시곤 했다. 실제로 자주꽃 감자를 보질 못했던 나는, 속으로 '그게 뭐 신기한 일인가?'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버지는 강원도 영월의 시골 동창 중에 가장 먼저 서울에 입성했다. 내가 일곱 살 되던 해 봄이었다. 처음 들어선 서울은 낯설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생전 처음 서울 땅을 밟아 본 아버지가 닳을 내린 곳은 마포구 만리동 깨끗한 기와집이었다. 방도 세 개나 되고, 반질반질 윤이 나는 대청마루도 꽤 넓었다. 원래도 쓸고 닦고 한 시도 쉬지 않는 엄마가 더욱 바빠졌다. 아침이면,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집안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시멘트 마당을 깨끗이 씻어 내리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다. 부엌이라도 드러다 볼라 치면, 밖보다 더 환할 정도였다. 크고 작은 양은 냄비, 솥, 대야 따위에서 발하는 빛 때문이다. 엄마는 마당에 허름하고 오래된 포대기 같은 걸 깔고 그릇을 닦았다.

빨간 이쁜이 비누, 지푸라기, ‘빠빠’라고 부르던 ‘샌드 페이퍼’, 쇠 수세미, 초록색 수세미, 흰 행주...

이런 것들이 엄마 작업의 도구였다.

대청마루는 거울처럼 윤기가 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은 노부부가 평생 지냈던 곳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큰 집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게 무섭고 관리하기도 어려워 관리인 겸, 세입자를 구한 것이었다. 그 때 집을 얻으러 온 젊은 부부를 보고 ‘한 눈에 집을 깨끗하게 쓸 사람’임을 알아보아 세를 들인 것이었다. 그 말을 잘 알아들은 엄마가 일삼아 집 안팎을 유리알처럼 쓸고 닦았다. 그 집에서 몇 년 살다가 할머니가 집을 파는 바람에 우리는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 집에선 일곱 살에서 초등 3학년 때까지니 4년 동안 살았다.

아버지는 술 한 잔 드신 저녁이면 구성진 목소리로 ‘마포종점’을 부르셨다.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는 왠지 슬펐다.

1절

밤깊은 마포종점 갈 곳없는 밤 전차
비에 젖어 너도 섰구 갈 곳없는 나도 섰다
강 건너 영등포에 불빛만 아련한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 기다린들 무엇하나
첫사랑 떠나간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

2절

저 멀리 당인리에 발전소도 잠든 밤
하나둘씩 불을 끄고 깊어가는 마포종점
여의도 비행장엔 불빛만 쓸쓸한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생각한들 무엇하나
곳은비 내리는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

아버지는 한 여름이면 장독대에 올라서서, “저기가 영등포, 저쪽 쪽이 당인리, 저기는 여의도 여.”하고 위치를 알려 주셨다. 아버지 손가락 끝을 따라가다 보면 작게 반짝이는 불빛을 볼 때가 있는데 약간은 아련하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비행기 길을 인도하느라 밤하늘을 훑고 지나가는 기다란 불빛은 신기했다.

나중에서야 감자꽃이란 시에 그토록 감탄한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었다. 촌에서 산과 들이며, 내 손바닥 보듯 서로 속내를 드러내고 살던 사람에 익숙했던 아버지가 타향살이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이 시에 감동했을 당시 아버지는 인간관계에서 감자 같지 않게 복잡한 서울살이가 어려우셨나 보았다. 자주색 감자이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하얀 감자이고, 하얀 감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자주감자였다면 이 시가 예사롭지 않았을 것이다.

만리동 시대를 지나 정착한 곳은 마포구 공덕동 186번지 산동네 중허리 쪽이었다. 그래서인지 위아래 동네의 얘기가 들어나는 곳이기도 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이야기로 들끓던 동네.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었다.

‘개바위’라고 하는 산꼭대기 큰 바위가 있었다. 한여름이면 어른들이 모여 개를 잡아먹던. 언젠가 개가 우는 소리에 친구들 몇몇이 올라갔다. 힘센 남자 셋이서 학교를 짓다 만 난간 쇠기둥에 개를 묶어 놓고 나무뭉둥이로 때려잡는 것이었다. 죽은 다음에서 불을 질러 검게 그을리고... 그렇게 해야 고기맛이 더 좋다는 얘기였지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잊혀지질 않는 풍경이었다.

내게 마포는 아직도 골목과 유년의 길을 안내하는 추억의 장소이다.“

“아, 좋은데. 우리는 미경이가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은 아니었구나.”

“응... 하긴 내가 사투리 안 쓰려고 애를 좀 썼지. 헤...”

“마침, 다음 글이 골목에 관한 애깁니다. 한 번 들어보죠.”

골목길 풍경

“이놈의 지지배야. 어쩌자고 학교에 안가고 돈 달라고 징징거리냐.”

“아, 오늘 육성회비 안 가져 오면 혼난다고 했던 말이야.”

“그래도 없는 걸 어쩌라고. 빨리 안가나? 이놈의 지지바들 때문에 내가 못산다.”

“나 학교 안가~~”

다음엔 말이 없다. 왈그렁덜그렁 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오는 건 봉당에서 쓰는 빗자루나, 플라스틱 바가지... 다치지 않을만한 그런 것들이다.

이후에 그 집에서 콩튀듯 나오는 건 여덟 명의 아이들이다. 그들은 똑같은 머리모양에 ‘도꾸리’라고 하는 실로 짠 티셔츠, 나일론으로 만든 튼튼한 바지, 고무신을 채 신지도 못하고 경사진 골목을 뛰어 내려오곤 했다.

그 중엔 내 친구 오경이도 하나 있어, 그날 일어난 사건에 대해 들을 수가 있었다. 오경이는 다섯째 딸. 일경이부터 팔경이 사이에 낀 아이였다. 부모님이 오직 아들 하나 낳겠다는 일념이 얼마나 강한지, 결국 아홉째로 남동생을 보긴 했다. 그 살림은 보지 않아도 뻔해 매일매일이 전쟁이었다.

오경이네 머리 자르는 날은 일삼아 구경이라도 할 만큼 장관이었다.

일단 마당 한 가운데 커다란 비닐을 한 장 깔 다음, 일경이 언니부터 바닥에 앉히고 엄마가 낮은 의자에 앉는다. 그 다음 뿔대접을 하나 가져와 아이 머리에 씌우는 것이었다. 앞머리를 자를 땐 그릇을 앞으로 숙여 어림을 하고, 뒷머리와 옆머리는 또 이리저리 기울여 가며 잘라가는 모양은 정말 신기하고 또 놀라웠다. 대신 여덟 명의 머리 모양은 똑같았다. 이 딸들은 그 머리가 끔찍해 이번에는 기르겠다고 발버둥 쳐봤지만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 조금만 소홀히 해도 버글거리는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그것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끔 잘 들지 않는 가위 때문에 살이라도 좀 째면, 핑계삼아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다. 그 집에서 돈 내고 머리 자르는 사람은 막내 ‘태산’이 밖에 없었다.

오경이네 뿐 아니라 그 때 여자아이들 머리는 거의 단발이었다. 보통 아이들이 넷이나 다섯이

되다 보니 엄마들이 얼마나 바빴을까. 세탁기도 전기밥솥도, 냉장고도 없는 때니 어느 세월에 아이들 머리를 관리한단 말인가. 길게 머리를 길러 양쪽으로 땡고 다니는 아이는 그 스타일만으로도 특별했다. 우린 그때 긴 머리에 한이 맺혔다. 하하

읽기를 끝내자, 누구랄 것도 없이 오경이가 어디 있나 찾기 바쁘다.

“오경이 왔나? 아까 본 거 같은데... 어디 있어?”

오경이가 앞으로 쭉 나선다. 형제 많은 집에서 자라서인지 성격이 활달하다. 부드러운 퍼머머리를 올려 핀을 꽂았다. 실크 블라우스에 고급스러운 투피스를 입었다. 여유로운 표정과 고운 화장이 지금의 생활을 보여준다.

“하하 우리집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 나보다도 니가 더 잘 기억하네.”

“응.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잖아. 형제들 다 잘 살지?”

“응. 막내 빼고 다 결혼했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 고등학교를 마치고도 했고, 중학교도 채 못마치고 공장에 다니다가 일찍들 제 짝을 찾았지. 마포 아랫동네에 가죽잠바 만드는 공장도 다녔고, 구로공단도 있었고... 지금은 다들 자리 잡아서 잘 살아. 애들도 대학 보내고... 언니들이 고생 많이 했다.”

“너도 여유 있어 보이네.”

“어~ 난 내 집 갖는 게 소원이라 추려했지만 일찌감치 집을 한 채 샀어. 그게 재개발되고 하면서 돈이 모이대? 지금은 그럭저럭 살아.”

“그래... 우리 엄마가 너희 보고 키울 땐 고생스럽지만 다들 지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나중에 옛말하며 살 거라 하더니 정말 그렇네. 잘 됐다. 하하”

“어~ 그러셨어? 너희 어머니 참 고우셨지. 부지런하시고... 난 너희집하면, 맛있는 열무김치랑 은처럼 반짝거리던 그릇부터 떠오른다... 아직 건강하시지?”

“...아니... 우리 엄마 97년도에 교통사고 나셨어. 머리를 다쳐서 누워계셔... 말도 못하시고...”

“그래? 어찌시다가... 그럼 어떻게 지내셔?”

“아버지가 고생이시지 뭐. 자식이라고 자주 뵈지도 못한다...”

“그렇지. 사는 게 뭔지... 다들 그래지더라...”

문득 생각이 났는지 미숙이가 묻는다.

“그래... 맞아, 나도 그렇다... 참, 머리 양쪽으로 길게 땡고 다니던 사진관집 딸 보영이는 어떻게 됐나?”

“보영이네가 좀 어려워졌어. 보영이 중학교 3학년 땠가 갑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대. 그 때만 해도 희귀병인데다가 수술을 해도 살아나기 힘들었을 때지. 보험이나 있었나? 재산 많이 까먹고 결국 오년 만에 돌아가셨지... 보영이가 무남독녀 외동딸이었잖니. 혼자서 고생 많았어...”

“그랬구나... 결혼은 했고?”

“응... 결혼식에 부르지도 았더라고. 그래서 신랑은 못 봤어.”

“그렇구나...”

다들 보영이 얼굴을 떠올리려는 듯 뭔가 생각하는 얼굴이 된다.

영민이가 가라앉은 분위기를 전환하려는지 짐짓 목소리를 높이며 밝은 표정을 짓는다.

“자, 이번엔 우리반 레스링왕 영철이 글을 보겠습니다.”

영철이 약간 쑥스러운 표정이면서도 자랑스럽게 교단을 향해 나간다.

김일과 이노끼

“빨리 가자...빨리 가~”

골목이 요란하다. 이집 저집에서 나온 아버지와 아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내외를 해서인지 아님 너무 잔인해서인지 엄마들이 같이 가는 일은 드물었다. 평소 만화가게는 금기 구역이었다.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며, 뭔가 불온한 느낌이었는지 용서가 되질 않았다.

하지만 유일하게 관촬을 때가 있었으니 바로 ‘김일의 레스링’시합이 열리는 날이었다. 아직 텔레비전이 보급되지 않은 1970년대. 흑백이었지만 극장에 가지 않고 움직이는 영상을 본다는 건 흥분되는 일이었다. 당시 남녀노소 최고의 오락거리는 아마 프로 레스링과 권투 아니었을까 싶다.

오래된 만화가게 문은 손끝만 살짝 대도 드르륵 열렸다. 주인은 문 앞을 지키고 서서 한 사람당 20원씩을 받았다. 아무리 일찍 간다싶어도 이미 그 좁은 가게는 동네 사람들로 터질 듯 가득 차 있었다. 등받이도 없는 긴 의자를 한쪽 구석에 쌓아놓고 바닥부터 차례차례 앉은 사람들.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보여도 비비고 들어가서 앉으면 그만이었다.

후라이보이 곱규석과 구봉서의 익살스러운 광고가 끝나면,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시합이 중계되기 전의 화면이 나왔다.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에 이미 사람들은 붕 뜨기 시작했다. 곧 김일과 이노끼의 모습이 보이고, 둘은 화려한 가운을 벗고 대결할 준비에 들어갔다. 링에 얼굴을 들이대듯 가까이 앉은 관중들의 아우성 소리에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이노끼는 김일 선수보다 키가 컸다. 그의 발차기, 당수, 쇠뿔치 같은 주먹은 위협적이었다. 이노끼는 머리카락이 길었고, 김일은 대머리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노끼는 두 얼굴의 사나이나 헐크가 연상되었던 듯하다.

둘은 사각의 링 안에 갇힌 맹수였다. 천천히 움직이고, 표범처럼 신중하며, 한시도 상대방에

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경기는 몇 번의 고비를 넘기지만 김일이 질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곤 했다. 너무나 흥분한 사람들은, “김일! 박치기!!”를 외치고, “이노끼 죽여라.”목청을 높였다. 나는 평소에 순하디 순한 사람들의 거친 모습이 믿어지지 않아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어 그들을 보았다. 경기가 돌아오를수록 일본에게 질 수 없다는 절박함까지 더해 광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었다.

이기기엔 역부족으로 보였던 김일의 ‘박치기’가 작렬하기 시작한다. 이노끼는 링을 둘러싼 줄에 기대어 휘청거리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가끔 링 밖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몇 옥타브로 올라간 우리나라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피가 튀거나 몸이 링 밖으로 떨어질 때는 내 몸도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결국 시원스런 김일선수의 승리로 경기는 끝나고, 사람들은 기쁘고도 아쉽게 만화가게를 나섰다. 진적도 있었겠지만, 내 기억엔 이겼을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아홉시쯤 됐을까. 돌아오던 전등불 희미한 골목길은 금방 본 영상으로 인해 붉은색과 검은색이 어른어른 비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학교에 가면 나름 전문가인 아이들의 관람평이 이어졌다.

“그거 가짜다. 진짜 그렇게 피 흘리면 죽는다.”, “아니다. 진짜다.”, “원래 짜고 하는 거다.” 그중 몇몇은 말다툼을 핑계삼아 즉석 레스링 경기를 벌이기도 했고... 그러다 누군가 코피가 터지면 구경꾼들은 그 아이를 양호실로 데리고 갔고 경기도 끝났다.

1970년대 액자 속 풍경이다.

“와 대단한데? 그거 니가 쓴 거 맞아?”

“으응...그렇지...”

“설마... 사실대로 말해라. 니가 썼는데 그렇게 더듬거리며 읽냐?”

“흐흐 사실은 큰딸한테 써달라고 했지~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어도 글이 돼야 말이지...”

“딸 글솜씨 최고네...”

“옛날에 내가 얼마나 글 잘 쓰는 애들이 부러웠는 줄 아냐? 오늘 뭔가 보여주고 싶었지.”

“아휴. 그랬어? 니가 글 욕심낸다는 거 몰랐네.”

선생님도 영철이를 보고 빙그레 웃으신다.

“딸한테 그 때 얘기해 주고, 용돈까지 바치고 해서 간신히 얻은 글이다. 하하”

“어쨌든 안 봐도 잘 키운 거 알겠다. 성의가 대단한데...”

“영철이랑 레스링할 때 마다 붙던 덕대 아니, 떡대 어딴냐?”

“여겼다. 난 덕대라고... 아직도 떡대라고 부르냐?”

”그러네...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날씬해졌냐. 못 알아보겠다.“

“다이어트 좀 했지. 그리고 고혈압이라 몸 관리 좀 한다.”

“정말, 세월이 흐르긴 흘렀구나. 그 때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말이야. 하하”

이번엔 김미희의 글이다. 미희가 없어서 오경이가 대독하기로 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막내가 초등학교 졸업을 한다.

아이들이 졸업할 때마다 참 묘한 감상에 젖는다. 특히 초등학교가 그렇다. 이유가 무언지 알 수 없었다. 큰아이와 둘째, 셋째에 이르기 좀 잡힐 듯하다. 그건 '미진함과 막막함' 평생 나를 지배하던 감정이었다.

그 일은 소소하게 시작됐다.

내가 졸업한 학교는 서울 마포에 있는 '공덕 국민 학교'였다. 한 반에 칠십에서 팔십 명 정도로 십 오반까지, 학교 규모는 엄청났다. 한 학년에 천 명이 넘으니 모이거나 헤어지는 일 자체가 엄청난 행사였다.

졸업식 날.

학교 앞 교문부터 담장을 타고 장사들이 늘어섰다. 꽃다발과, 졸업장 케이스를 넣는 파랗고 붉은 용 같은 형상으로 쓴 원통형의 상자는 기본이었다. 솜사탕 장수는 부지런히 기계를 돌렸고, 노란 사탕을 녹여 팔뚝만한 붕어나, 권총 따위를 새긴 토끼기, 번데기와 붕어빵 장수들이 줄줄이 서서 손님을 불러댔다.

단상에는 한다하는 하객들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각기 자리를 잡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았다. 6학년 아이들은 오른쪽에, 5학년은 왼쪽, 주위를 둘러싸고 졸업생들 가족이 있었다. 애국가, 교장선생님 말씀...졸업장부터 개근상에 공로상, 저축상까지 경찰서장도, 우체국장도, 동장도 상을 줬다. 게다가 송사와 답사...식은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 중에도 우리 엄마는 당연 내 눈에 띄었다. 동생들과 서 있는 엄마 모습이 반가웠다. 한 시간 여에 걸친 졸업식이 끝나고 졸업장과 6년 개근상장을 받고 운동장으로 나왔을 때 엄마가 보이질 않았다. 이상했다. 찾고 또 찾았다. 그 넓은 운동장, 학교 뒤뜰, 컴컴한 자재실 옆까지 찾았는데도 엄마는 없었다.

운동장은 서둘러 빠져나간 사람들로 행했다. 종이 꽃다발에서 떨어진 꽃들과, 심하게 번쩍거리는 진노랑과 파랑, 어울리지 않게 선정적인 진분홍색 반짝이들이 찌르듯 눈에 들어왔다. 터무니없이 화려한 색들이 파장에 이르기 오히려 더 무참했다. 장사꾼들도 판을 접고 떠나려 할

때 쯤, 수영이네 가족을 만났다. 수영이는 우리 옆집에 살았고, 가장 친한 친구기도 했다.

“미희야~~”

길게 부르는 수영이 목소리가 반갑고도 난처했다. 멍청하게 엄마도 못 찾는 나를 들켜야했기 때문이었다.

“엄마를 못 찾았다고? 어이구 사람이 워낙 많았어야지... 우리랑 같이 가자...”

수영이네를 따라 중국집에 갔고, 짜장면을 먹었다. 그 짜장면이 맛있었던가 아니던가 잘 모르겠고, 그저 불편했던 기억만 또렷하다.

중국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엄마가 있었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상 주는 거 끝나자마자 집으로 와 버렸다. 어째 너는 상장 하나 받는 게 없냐...”

요컨대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의 딸은 상장하나 받는 게 없더라는 거였다.

이후 엄마는 동생들 졸업식에 꼬박꼬박 참석했고 짜장면도 사주셨다. 당연 상을 못 타도 뭐라 하지 않았다. 난 동생들 초등 학교 졸업식 때마다 투덜거렸다.

“엄마는 뭐 내 졸업식에 와서 밥도 안 사주고 먼저 집으로 왔잖아...”

다른 건 우기든 어쨌든 큰소리치며 넘어갔던 엄마도 저 말에는 겸연쩍어 하시며 몇 번이고 같은 말을 하셨다.

“난 니가 일 학년 때부터 상도 타고, 공부를 곧잘 해서 당연히 뭔가 하나 받을 줄 알았지... 니가 첫째라... 내가 뭘 모르긴 했다...”

이 일은 엄마에게 유일한 아킬레스건임을 알았을까. 내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야 그게 딸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란 걸 눈치챘다.

‘그 까짓 거 가지고...’그 때 엄마를 용서했다. 하지만 소화된 건 아니었다. 억울함과 슬픔, 뭔가가 모르게 잘못했다는 감정이 남았다. 이후에도 누구의 칭찬이나 인정과는 상관없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반복되고 있었던 걸 보면... 뭔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일이 보태진 건 맞다.

글을 읽던 오경이의 목소리가 젖어든다 싶었는데, 곧 울먹이기 시작한다. 더 읽지 못하고 서 있는 오경이를 대신해 수영이가 나머지를 읽었다.

사람이 묘한 건 머리로 이해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나를 돌아보는 건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함임을, 그것이 해결의 열쇠임을 알기 때문이다. 딸아이 졸업식이 나에게 들려붙어 있던 그 미진함을 떠나보낼 하나의 매듭이 될 것임을 예감한다. 다행스런 일이다.

다들 한 동안 말을 잃었다.

“역시... 작가다. 미희 어쩔 저렇게 글을 잘 쓰냐?”

“난 졸업식장에 가 있는 거 같았어.”

“소름 끼친다.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그림 그리듯 쓸 수 있다니... 미희 대단하다...”

이번엔 일찌감치 이성애 눈을 뜬 수영이의 글이다. 다들 기대어린 눈빛으로 수영이를 바라본다. 수영이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애교스러움과 어려보이는 얼굴은 여전하다. 예쁘장한 수영이는 중학교에 가면서 타고난 소질이 지나치게 발현되기 시작했다. 마포에 있는 중,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줄을 서서 수영이를 기다리거나, 집 앞에서 부르거나 했다는 전설 아닌 전설을 갖고 있는 아이다.

마포 관내에 학교는 서울여중고, 마포여중, 수도중학교, 수도 공고, 동도 중학교, 동도 공고, 마포고등학교 등이었다. 우리는 소위 ‘뽕뽕이’라고 하는 컴퓨터 추첨으로 입학한 세대였다. 수도 중학교에는 당시 내로라 하는 하이틴 배우이자 ‘꼬마신랑’이었던 ‘김정훈’이 다니고 있었다.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흰 피부에 뚜렷한 이목구비는 요즘말로 ‘자체발광’하는 꽃미남 원조랄만 했다. 정훈의 주위에는 대, 여섯 명의 추종자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다. 수영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정훈이와 마주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김정훈이 나를 보고 웃었다.’고 요란을 떨었다. 약간 푼수같지만 귀여운 친구였다. 수영의 낭독이 시작됐다.

난 그대를 짝사랑 했네.

‘아니, 저렇게 산뜻한 사람이 있다니...’

출근길에 뭔가를 사려고 들른 곳에서 한눈에 들어온 사람이었다. 마포구 공덕동 수도공고 아래에 있던 정인당 약국. 거기에 새로운 약사가 한 명 근무하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은 멋졌다. 내 나이 스물 하나. 상업 고등 학교를 졸업한 나는 은행에 취직이 되었고, 일을 배우라, 친구를 만나라 나름 바쁘고 즐거운 생활을 해오던 터였다. 문학청년의 대표주자 같은 그 사람은 오롯이 내 모든 이상형 그 자체였다.

그날 이후. 내 발걸음은 그 약국이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느려졌다. 그러다 갑자기 어딘가 아파지면서 자동으로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다.

“저~ 소화가 잘 되지 않는지 배가 좀 아픈데요...”

“그래요~ 어떻게 아픈데요?”

“음~ 어떻게 아프더라...”

“네~ 오른쪽 아래로 찌르듯이 아파요.”

"그럼 혹시 맹장염 아닐까 싶은데, 병원에 가 보시는게..."

"아네요. 그렇게 심하진 않구요..."

"그럼 소화제를 드려 볼테니 드시고 계속 안 좋으면 병원에 가 보세요."

그리고는 '헬스탈'과 '가스활명수'를 받아서 나온다. 물론 그 약을 먹지는 않는다. 놀랍게도 내 병은 그 약사와 말만 나뉘도 단박에 낫는 것이었다.

이후 나는 정수약국의 단골이 되었다. 약국에 들어서면 부부였던 원래 약사 두 분은 슬쩍 자리를 비켜주는지 양보한 건지 꼭 그 사람하고만 내 건강에 대해 '상담'을 하는일이 잦아졌다. 두 분 또한 친절했지만 난 꼭 그 약사와 얘기를 해야만 했다. 밖에서 보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

하루하루 집에는 별별 약들이 다 쌓여가고, 특히 엄마는 나를 기특해 하셨다. 어느 날은 이모에게 전화를 해 자랑하는 소리까지 들렸다.

"역시... 말팔은 달라. 세상에... 취직해 몇 달도 안 됐는데 식구들 건강을 그렇게 챙기는 거야. 온갖 상비약과 밴드, 연고, 모기약까지 안사오는 게 없네... 개가 그렇게 찬찬한지 몰랐다니까."

이모가 샘이 나는지 뭐라 했나 보았다. 엄마가 펄쩍 뛰며 말을 이었다.

“월 지켜보긴 지켜봐. 몇 개월을 꾸준히 그렇게 했으면 그냥 계속되는 거지. 개가 좀 까불고 생각 없는 것 같아도, 속이 깊은 애야... 애, 탄불에 공국 올려놔어. 가 봐야겠다. 전화 끊자.”

그러거나 말거나 난 열심히 약국에 있는 온갖 것들을 사다 날랐다. 하루라도 그 사람을 안보면 눈에 시커먼 철창이 내리 닫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6개월 쯤 지나갔다. 그 사람이 보이질 않았다. 출,퇴근할 때 수시로 확인을 해도 증발하듯 사라져 버린 거였다. '아~ 참~ 이상하네...'

보름 쯤 되었을 때, 결국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부부 약사만 있는 약국으로 들어섰다.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설명해 주셨다. 그 사람은 원래 약사 아저씨의 친동생이었다고... 약대에 다니고 있는데 군대가기 전에 경험삼아 형 약국에서 잠시 근무했으며, 더불어 보너스로 머나먼 섬으로 배치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알려주었다. 혹시 필요하면 주소를 알려주겠다 해서 아니라고, 괜찮다 하고 나왔다.

이후 나는 온갖 병이 한꺼번에 싹~ 나았고, 당연히 '정인당 약국'같은덴 발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집엔 여전히 그 많은 약들이 쌓여있었다. 그 중 일부는 곧 떨어졌지만 난 다시 채워넣지 않았다. 뭐하러?

그래도 소화제와 두통약, 수많은 연고들은 온 식구가 몇 년 족히 썼을 거다.ㅋㅋ

다들 킬킬깔깔 웃느라 허리가 휘어졌다.

“맞다맞다 정인당 약국 그 약사 선생님 참 선하고 점잖았는데.”

“경순아, 너도 기억나?”

“응...”

“수영아, 웬일로 니가 짝사랑을 하기도 했냐? 날마다 남자들이 쫓아와서 처치곤란이었다며?”

“그건 그거고... 나도 짝사랑 할 수 있지 뭘...”

“하여튼 수영이 글은 솔직해서 재미있다. 그 사람 뒷소식은 몰라?”

“응... 그 이후에 못 봤어... 내 장점이자 단점이 잘 잇는 거라. 하하”

이번엔 내 글을 읽기로 했다.

국군의 날

하늘이 푸르렀다. 10월 1일은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 것 같다.

국군의 날 행사는 성대했다. 거기다 학교도 가지 않으니 얼마나 신이 나든지... 아침부터 아이들은 어디선가 태극기를 구해 하나씩, 둘씩 들고는 골목을 뛰돌아 다녔다.

TV에서 중계하는 기념식에 대통령이 나와 기념사를 읽고, 장난감 병정처럼 줄 세워있는 군인들 사이를 지프차를 타고 순시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중간에 대통령이 내려 군인 앞으로 다가와 악수를 건네면, 그들은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팔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 뭐라고 한 마디 하면 다들 “넵!”, “좋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했던 것 같다.

대통령의 순시가 끝나면 곧 비행기 쇼가 이어졌다. 진분홍, 파랑, 노랑 연기를 뿌리며 활강을 하는 비행기는 엄청나게 멋있었다. 또,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알을 낳듯 군인들이 한 명씩 떨어져 내리다가, “아~”하는 순간에 낙하산을 펴는 모습은 어찌나 신기했는지... 더 어렸을 때는, 그 낙하산을 얻겠다고 떨어질 자리를 으뜸해 친구들과 여의도 쪽으로 뛰어가기도 했다. 마음 착한 국군아저씨가 하나쯤은 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이 끝나고, 아나운서가 “이제부터 행진이 시작되겠습니다.” 하면 여의도로부터 쿵쾅거리는 군악대 소리가 우리 동네까지 울려왔다. 이미 가로수 아래 도로는 사람들로 꽉 찼고, 우리들 중에 날렵한 친구들은 그 콩나물시루처럼 뾰뾰한 틈을 용케도 뚫고 들어가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곤 했다.

행렬의 선두를 차지한 건 세일러 컬러의 흰색 정복을 입은 군악대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 부대에서 차출된 군인이었겠지만 다들 얼마나 미끈하고 키가 큰지 이 세상 사람들 같지가 않았다.

“뽐뽐 뽐뽐~”

햇볕을 받아 번쩍거리는 관악기와 어깨에 걸어 배 쪽에서 치는 북소리, 가끔 “챙~”하는 소리를 내는 심벌즈도 신기했다. 그렇게 많은 악기가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구경하는 날이기도 했다. 게다가 박수를 치든, 환호성을 지르든 그 차갑고 도도한 무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더 어른스럽고 멋져 보였다.

마포는 여의도에서 행사가 끝나면 꼭 지나쳐 가는 길이었다. 외국에서 대통령이나 국민이 오면 우리는 공부하다 말고 태극기나 그 나라 국기를 하나씩 들고 도로변에 줄지어 섰다. 길가에 서 있으면 날개를 편 새 모양의 경찰 오토바이가 앞서고, 이어 사이드카가 지나가고, 검은색 방탄유리로 둘러싸 안이 보이지 않는 세단이 지나갔다. 같은 차가 여러 대라서 어디에 대통령이 있는지 모를 때도 있었다. 가끔 대통령이 창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주면, 우리는 또 감동하고 신기해서 국기가 찢어지도록 흔들었다. 장난꾸러기 남자애들은 기다리는 새 무슨 시비가 붙었는지 자기네끼리 티격태격하다가 행사가 끝난 줄도 모르기도 했다.

부처님 오신 날엔 거대한 코끼리 상에 탄 부처님이 지나갔고, 밤이 깊을수록 연등의 끝도 없는 행렬이 거리를 밝혔다. 그러고 보면 마포야말로 우리나라 축제의 산 증인이 될 의미 있는 곳이다. 가난했지만 고달프지 않았던 이면에는 그렇게 함께 즐기던 축제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야~ 재밌다.”

“신기하네... 같이 자랐는데도 기억하는 게 다 다른 걸 보면...”

“그렇네. 나는 그 때 싸웠던 1인에 속했을 것 같다.하하”

선생님도 그 날의 기억이 생생하신지 한 마디 보탠다.

“응... 그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 출신이기도 했고, 전쟁, 무장공비출현해서 아직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았을 때지. 국군의 날 행사의 규모나 볼 거리가 대단했어.”

이번에는 모 대학 국문과 교수 김정태의 글이다.

새우젓과 족발

내게 마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

처음부터 엄마가 족발 장사를 시작한 건 아니었다. 새우젓이 유난히 싸고 맛있는 곳이라고

소문이 난 동네라 처음엔 새우젓을 파는 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 수입으로 우리 삼형제가 살아가는 건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한 외줄타기였다. 그나마 비가 오거나 한겨울에는 일이 없으니 몇날 며칠 수제비로 때우기도 했다.

사정이 어렵다 보니 엄마는 큰 드럼통에 있는 새우젓을 사와 작은 비닐에 포장을 했다. 즉 도매로 떼어다 소매로 파는 일이었다. 비닐 봉지에 깔대기를 대고 새우젓을 넣으면 희고 통통한 새우젓이 담기고 곧 입구를 오무려 묶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엄마는 맏아들인 내게 주로 그 묶는 작업을 시켰는데, 새우젓에 손이 닿지 않으려고 최대한 손가락을 길게 펴고 묶다가 쏜은 적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나의 칠칠치 못함을 야단쳤지만, 난 여전히 그 일이 하기 싫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다.

엄마에겐 비린내와 짠내가 가시질 않았다. 소금에 전 하얀 얼룩과 새우젓 국물에 절은 앞치마는 엄마 옷에서 떨어질 줄 몰랐고, 준비물이나 육성회비를 꺼내 줄 때도 유난스런 그 냄새는 가시질 않았다. 그 돈을 학교에 낼라치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냄새부터 맡는 것 같았다. 난 그런 냄새를 풍기는, 또한 내게도 전염시키는 것 같은 엄마가 싫었다. 제발 새우젓 장사만은 하지 않았으면 싶었다. 그리고 절대로 난 냄새나는 돈을 쓰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러던 엄마가 족발가게를 인수한 건 정말 우연이었다. 새우젓을 대 주던 가게 아주머니가 아들을 따라 이민을 가게 되면서 성실하고 착실한 엄마에게 헐값으로 가게를 양도한 것이었다. 이제 엄마 돈은 비린내가 아니라 돼지기름으로 번질거렸다. 아버지도 노가다를 그만두고, 물건을 떼오고, 손질하는 일을 하셨다. 기름 냄새가 강해질수록 우리집 형편도 펴가기 시작했다. 더불어 우리 남매도 시장에 나가 일을 거들곤 했다.

가게일은 그럭저럭 도왔지만, 너무나 싫었던 건 시장 어귀의 색시집으로 족발 배달을 가는 것이었다. 해가 지면 크레파스에나 있을 것 같은 연두, 분홍, 빨강, 노랑 한복을 입은 색시들이 마포 천변을 타고 늘어서 있는 가게 앞에 나와 앉아 있곤 했다. 그걸 처음 본 게 초등학교 3학년 쯤이었을 것 같은데 이미 난 그 색시들이 하는 일이 뭔지 어렵풋하게 알 것 같았다. 다음부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술집이 있는 길을 피해 다녔다. 뭔가 모를 음습하고 이상한 기운이 본능적으로 다가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 술집에 배달을 하게 된 건 가게에 전화가 놓이면서부터였다.

“띠리리링~”

“여보세요?”

“어~ 아줌마, 여기 장미집인데 족발 두 개 배달!”

밀도 끝도 없이 전화해서, 반말 비슷하게 주문 내용을 읊어대고 끊곤 하는 그녀들이 싫었다. 엄마는 일부러 내가 싫어하는 걸 모른 척 하고 내게 배달을 시켰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는지

칠순 생신 때 그 얘기를 꺼내셨다.

“나도... 니가 싫어하는 지 왜 몰랐겠나. 새우젓 장사를 할 때도 내가 주는 돈을 손끝으로 받아 주머니에도 넣지 않고 가는 걸 몇 번이나 봤는데... 하지만 우리가 뭘로 먹고 살았겠어. .. 배달할 때도 정미나 정숙이나, 여자애들을 보내는 건 더 그럴잖았겠어? 그렇다고 배달하는 사람을 따로 돌 형편도 못 되고... 그게 지금도 마음이 아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죠. 지금에서야 그때 엄마가 얼마나 막막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종년 티가 완전한 정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오빠, 혹시...그 때 일이 기억에 남아 장가를 안 간 거야? 여자들에 대한 안 좋은 인상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한참 사춘기였으니...”

“그렇지 않다. 공부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 늦어진 거지...”

난 그 이후 몇 십년 동안 콩나물국밥과 족발을 먹지 않았다. 한 가지는 새우젓, 하나는 공덕 시장의 뿌연 김과 돼지고기 냄새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동창을 만나면, 학교 뒤 어디 쯤에 있을 족발집을 찾아 소주 한 잔 하려나. 이제는 그것들과 내 기억과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와~ 다들 명문장에, 감동 깊은 내용들이네요.”

선생님도 만면에 함박웃음을 띄고 말씀하셨다.

“응... 그래? 정말 대단하구먼... 고마우이.”

“그리고 보니 정태가 아직 결혼을 안 했네...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아, 뭐. 공부하느라 늦어졌어.”

“교수님, 안되겠습니다. 우리 모인 김에 ‘김정태 교수 결추위’ 다시 말해 결혼추진위원회라도 결성합시다.”

“좋아좋아. 김미희도 미혼이라는데 우리가 연결해 보자고~”

“아이고, 됐다. 됐다!”

다들 놀림반 웃음반 아예 날짜까지 잡을 기세다.

“그러지 말고, 우리 정태의 글에 나온 대로 족발집부터 찾아갑시다. 다들 이제 시장해졌을 것 같은데...”

“맞아. 아 참, 선생님 족발집 팬찮으시겠어요?”

“그럼~ 마포에서 산 게 몇 십년인데, 이번엔 내가 잘 아는 단골집으로 안내하기로 함세... 내 출판기념을 해서 모였으니...”

“아닙니다. 좀 더 멋진 한정식집을 꼽아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분위기가 돼서...”

“아니네...아니야. 매일 먹는 밥인데 뭘... 오늘 우리 제대로 한번 마포를 누려보세.”

“넵~ 선생님! 그럼 오늘 반창회를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다들 뒷시간 넉넉히 비워두었죠?”“그럼~~”“당연하지!”

“몇 차까지 책임질 건데?”

교실을 나와 운동장을 걷는 장년들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세월을 거슬러 열네 살 어린 소년, 소녀가 된 듯 높은 웃음소리가 노을 속에 가득했다.